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의 구약 성서 이해

김유준*

1. 이그나티우스의 신학 사상

성서에 대한 교부들의 이해는¹⁾ 전통적으로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필자는 초기 교부들 가운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 바울 등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온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을 중심으로 초기 교부들의 구약 성서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도들 이후에 기독교 신앙과 정체성을 이어준 대표적 속사도 교부인 이그나티우스의 사상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그나티우스의 사상 중에서도 유대교와 이교,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에 대처하면서 기독교 신앙 가운데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그나티우스에 대한 근대의 연구는 크게 세 시점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시기는 서신들의 진정성 여부가 주로 연구되었다.²⁾ 두 번째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교회사

- 1)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 Ante-Nicene Christianity A.D. 100-325*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50), 627. 교부라는 호칭은 사도들 이후부터 동-서방 기독교가 분리되기 전까지의 교회 저술가 중에서 교회 학문 혹은 정통 교리(doctrina orthodoxa), 거룩한 인격과 생애(sanctitas vitae), 충분한 고대성(competens antiquitas), 교회의 승인(approbatio ecclesiae)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해당된다. 슈미트, 『교부학 개론』, 정기환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7), 20-22.
- 2) 이러한 연구는 베델리우스(Nicolaus Vedelius), 우셔(James Ussher), 피어슨(J. Pearson), 잔(Theodor Zahn), 라이트푸트(Joseph B. Lightfoot) 등이 했다. Allen

시기는 기독교 사상사의 관점에서 그의 서신을 탐구하기 시작했다.³⁾ 세 번째 시기는 종교사에서의 이그나티우스 위치를 연구했다.⁴⁾ 이그나티우스에 대한 최근 연구는 신학적 반성의 출발점으로서 그의 서신의 중요성이 계속 증명되고 있다. 특히 이그나티우스는 초대 교부들을 연구해서 영성과 신학의 갭신을 피하는 현대 가톨릭 학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⁵⁾

1.1. 이그나티우스의 사상적 배경

시리아 지방 안디옥에서 37년 동안(70-107년) 감독을 지낸 이그나티우스는 30-35년경에 태어났다.⁶⁾ 비잔틴의 성인전은 그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어린이로, 예수의 무릎에 앉아 축복을 받은 어린아이라고 한다(마 18:1-4).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요한과 베드로에게서 제자 훈련을 받았고, 베드로가 그를 안디옥의 두 번째 감독으로 세웠다.⁷⁾ 베드로가 49년의 예루살렘 회의 이후 안디옥으로 갔고, 그곳

Brent, "The Enigma of Ignatius of Antioch," *The 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 57 (2006), 429-430.

3) 골츠(E. F. von der Goltz)가 대표적이다. E. F. von der Goltz, *Ignatius von Antiochien als Christ und Theologe. Eine dogmengeschichtliche Untersuchung*, TU 12:3 (Leipzig: J. C. Hinrichs, 1894).

4) 슬리어(H. Schlier)와 바르취(Bartsch)가 이그나티우스 사상의 영지적 요소를 연구했다. H. Schlier, *Relig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en zu den Ignatius-briefen* (Giefien: Topelmann, 1929); H. W. Bartsch, *Gnostisches Gut und Gemeindefradition bei Ignatius von Antiochien* (Gütersloh: Werner, 1940)을 참조하라.

5) William R. Schoedel, *Ignatius of Antioch* (Philadelphia: Fortress, 1985), 1-2.

6) '이그나티우스'라는 라틴어 이름은 '불'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남성명사 "ignis"에서 유래하였다. 그의 이름은 '불 같이 뜨거운 사람'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칠십여 평생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의해 잉태된 자"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이것은 이방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이그나티우스는 세례명이 "테오포루스"(Theophorus; bearer of God, 하나님을 지고 가는 자,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다.

에서 이그나티우스에게 사상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한다. 바울은 40년경부터 바나바의 동역자로 안디옥에서 사역하였고,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모두 안디옥에서 출발하였기에 이그나티우스는 바울에게도 사상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⁸⁾ 이처럼 이그나티우스는 사도들과 가장 밀접한 속사도 교부이기에, 그의 저술과 사상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 그는 로마로 압송되는 도중에 일곱 통의 서신을 썼다.⁹⁾

‘보편적’(καθολική) 교회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기독교’(Χριστιανισμός)라는 용어도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서 처음 나타난다.¹⁰⁾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독교 신자들을 로마

-
- 7) 이그나티우스가 안디옥의 몇 번째 감독이었는지는 논란이 있다. 유세비우스는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었던 유오디우스(Euodius)의 죽음으로 이그나티우스는 두 번째 감독으로 지명되었다. 시몬(베드로)은 또한 우리 주의 형제(야고브)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즈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감독)을 맡았다.”고 증언한다: Eusebius Pamphilus, *Eusebius' Ecclesiastical History* (Peabody: Hendrickson, 1998), 104. 그러나 폭스는 “이그나티우스는 베드로의 뒤를 이어 안디옥 교회의 감독으로 임명되었다”고 본다: 존 폭스, 『순교사』, 엄성옥 역 (서울: 은성, 1992), 26. 또한 레이크는 “이그나티우스는 시리아의 안디옥의 세 번째 감독이었다”고 증언하면서 각주로 “전통에 의하면 베드로가 첫 번째 감독이었으며 유오디우스가 두 번째 감독이었다”고 덧붙였다: Ignatius, *The Epistles of Saint Ignatius in The Apostolic Fathers I*, G. P. Goold, ed., The Loeb Classical Library, Kirsopp Lake, tra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12, 1977), 166(이하 AF로 표기함). 한편 곤잘레스는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 “안디옥도 로마처럼 연합 감독직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한 명의 감독 제도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후스토 곤잘레스, 『기독교사상사 I』, 이형기, 차종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8), 92.
- 8) Ernst Dassmann, *Der Stachel im Fleisch: Paulus in der frühchristlichen Literatur bis Irenäus* (Münster/Westfalen: Aschendorf, 1979), 126-149. 또한 히에로니무스는 이그나티우스가 97년경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 9) 이 서신들은 서로 다른 세 개의 긴 수정본에 전해지며, 수정본에 가(假) 이그나티우스 서신들이 첨가되었다. Ignatius, *The Anti-Nicene Fathers* 10, Alexander Roberts and James Donaldson, eds. (Grand Rapids: Wm. B. Eerdmans, 1885), 45-132(이하 ANF로 표시함).
- 10) Ignatius, *Ignatius to the Magnesians*, AF, 206-207; Ignatius, *The lowly handmaid of Christ Jesus to Ignatius, her beloved fellow-disciple*, ANF I, 201.

당국자들과 충돌하게 만든 이름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81-96년)는 자기를 “주(主)요 또한 신”으로 숭배하라고 요구했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며 그 가족들까지 ‘무신론자’로 간주하여 처형했다. 또한 총독인 플리니우스 2세는 그리스도인의 학살에 대해서 트라야누스 황제(98-117년)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만큼 로마법을 범하지 않았는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매일 처형된다고 증언했다.¹¹⁾ 압송의 긴 여정 속에서도 이그나티우스는 교회의 지도자가 순교를 두려워하여 죽음에서 도피할 때에 교회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를 염려했고, 순교야말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도가 완성된다고 보았다.¹²⁾ 결국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고백 때문에 시리아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순교했다.¹³⁾

11) “그들의 잘못, 혹은 범죄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단지 그들이 정해진 날 새벽에 모여 하나님인 그리스도에게 정해진 형식의 기도를 암송하면서 악을 행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결코 절도나 강도짓이나 간음을 하지 않으며 거짓말하지 않으며 남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한 뒤 헤어졌다가 다시 모여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그들의 관습입니다.” Pliny, *Letters and Panegyricus* 2, Betty Radice, ed., tra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12) W. H. C. Frend, *Martyrdom and Persecution in the Early Church* (Cambridge: Lutterworth Press, 2008), 151-154.

13) “만약 여러분이 방해하지 않는다면 저는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저에게 ‘때에 맞지 않는 친절’을 베풀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맹수들의 먹이가 되는 고통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밀이며, 맹수들의 사나운 이에 갈기갈기 찢겨 그리스도의 순결한 빵으로 될 것입니다. 맹수들을 통해 저의 몸이 하나도 남지 않아 무덤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서 제가 깊은 잠에 들 때, 어떠한 사람에게도 짐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세상이 더 이상 저의 몸을 조금도 볼 수 없을 때, 비로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Ignatius, *Ignatius to the Romans*, AF, 231. 폴리갑, 이레네우스, 유세비우스 그리고 제롬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트라야누스 황제의 박해 때인 108년에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며, 레이크와 곤잘레스, 그리고 프렌드는 107년경으로 본다. Lake, *The Epistles of Ignatius*, AF, 166; 후스토 곤잘레스, 『초대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은성, 1987), 71; W. H. C. Frend, *The Rise*

1.2. 이그나티우스의 서신들

이그나티우스의 서신들은 초대교회들 간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서,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학문적 논의의 중요한 점들을 반영하고 있다.¹⁴⁾

380년쯤에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통의 서신들이 개정되고 증보되었다. 또한 여섯 통의 서신이 덧붙여졌다. 중세에는 라틴어로 된 네 통의 짧은 서신이 부가되었다. 더 길어진 개정판이 1498년에 라틴어로 인쇄되었고, 1557년에는 헬라어로 인쇄되었다. 1646년에 여섯 통의 서신이 본래 모양으로 짧아진 형식으로 출판되었다. 1689년에 로마 사람들에게 뒤이어 출판되었다. 그때에 학자들은 그 늘어난 개정판은 분량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보다 더 짧은 세 통의 서신들의 시리아 개정판이 1845년에 출판되었는데, 진정성이 입증된 서신들에서 발췌한 것이었다. 개신교에서는 단일 감독 제도에서의 성직 위계와 감독(주교), 장로(사제), 집사(부제)로 수직적인 구분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¹⁵⁾ 진정성을 거부했지만, 오늘날은 여러 학자들로부터 그 서신들의 진정성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¹⁶⁾ 무엇보다도 폴리카프와 이레네우스, 오레게네스, 유세비우스 등에 의해 그 진정성이 증명되고 있다.

이그나티우스가 쓴 일곱 통의 서신들은 영감과 교훈적인 가르침이다. 그가 순교의 고난을 당해야 했던 로마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로마

of Christianity (Philadelphia: Fortress, 1984), 124.

14) William R. Schoedel, *Ignatius of Antioch*, 4.

15) 감독 중심의 성직 위계 제도를 최초로 분명하고 과감하게 제기한 사람은 당시 로마 감독인 클레멘스가 아니라, 동방교회의 감독인 이그나티우스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 Ante-Nicene Christianity A.D. 100-325*, 660.

16) 알타너는 잔(T. Zahn), 핀크(F. X. Fink), 라이트푸트(T. B. Lightfoot), 하르낙(A. Harnack) 등의 뛰어난 변호 덕분이라고 했다. Berthold Altaner, *Patrology*, H. C. Graef, trans. (New York: Herder & Herder, 1960), 45ff.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며 로마의 수도로 향하여 죄수로 끌려가는 도중에 쓴 것인데, 그의 외적으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았던 박해로 말미암아 지도자가 없는 점과 내적으로 기독교의 본질적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서신들은 그가 마지막 순교의 자리로 오는 도중에 거친 필라델피아와 서머나 도시의 교회들과 그가 마지막 여정에서 방문한 에베소, 트랄레스, 마그네시아의 교회에 위임하는 서신들이다. 또한 로마 교회에 그가 순교하는 것 때문에 그를 건져내려고 한 로마의 권위자의 개입을 막기 위해 서신을 보냈다. 그는 또한 서머나의 감독인 폴리갑에게도 서신을 썼다. 신약 성경의 서신과 유사하게 이 저작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헌신과 그분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육체적 사실들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이그나티우스는 네 통의 서신을 서머나에서 썼고, 세 통은 드로아에서 썼다. 서머나에서 그는 마그네시아, 트랄레스, 에베소, 그리고 로마로 서신을 보냈다. 이 중 앞의 세 통의 서신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마중 나왔던 사람들을 통해서 보냈는데 이들에게 서신과 함께 감사의 말씀과 찬고와 신앙에 굳건히 서 있으라고 격려하는 말까지 전했다. 감독 다마스(Damas), 2명의 장로, 그리고 한 명의 집사가 마그네시아에서 그를 맞으러 왔다. 트랄레스는 약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감독 폴리비우스(Polybius)만 왔다. 에베소는 감독 오네시모가 이끄는 상당히 많은 대표단이 왔는데 이들 중에는 집사 부르후스(Burrhus)가 이그나티우스의 서기로서 서신들을 기록해 주었다.

로마의 경우는 상당히 달랐다. 이그나티우스는 이미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자신을 순교 죄목으로부터 면죄시키려고 운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듯했다. 그는 이러한 계획에 대해 반대했다. 왜냐하면 자신은 순교의 순간을 진정으로 원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미 정해 주신 길을 가로막지 말라고 부탁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고난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드로아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서머나에 있는 교회, 감독 폴리카프, 필라델피아 교회에 서신을 썼다. 이상 세 곳에 보내는 서신은 앞에서 언급한 네 통의 서신들보다는 좀 더 밝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자신이 염려했던 문제들을 잘 견디어 내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서머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자신에게 보여 준 친절에 감사하며 신앙을 굳건히 붙잡으라고 부탁했다. 또한 서머나의 감독인 폴리카프에게도 서신을 보내면서 감독으로서의 기능에 관한 권면을 하고, 또한 시리아에 인편을 보내서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을 무난히 이겨낸 데 대해서 축하한다는 자신의 말을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에게 감독의 지도를 잘 받고 있음을 축하하고 나서 거짓 선생을 경계하라고 권면했다.¹⁷⁾

이그나티우스의 서신들에 나타난 마음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반박, 교회의 일치와 구조, 그리고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한 입장 등이다.¹⁸⁾ 역사적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특정한 동기로 간결하게 기록된 이그나티우스의 서신들은 짜임새가 비체계적이고 내용이 방대하지는 않지만 고대의 서신 쓰는 방식과 수사학적 규칙에 따라 작성되었다. 서신들의 문학적 특징은 서간문 형식, 헬레니즘 세계의 수사학, 사도신경의 형태와 찬송의 요소들, 인용과 인용(引喩) 등이 있다.¹⁹⁾

그의 서신의 주된 주제와 관심사는 다음과 같다.²⁰⁾ 첫째, 그리스도가 현세에 대한 경고가 부각되어 있다. 성찬 안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처럼 그의 성육신, 죽음, 부활은 단지 외적인 허구의 형태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다는 실재 안에서 일어난 것임을 말했다. 둘째, 삼위일체적 유신론과 교회론 등이 담겨 있다. 처음으로 보편적 교회(ἡ καθολικὴ ἐκκλησία)를 언급한 그는 지상교회의 조직은

17) 후스토 곤잘레스, 『기독교사상사 I』, 91-94.

18) 하머 라이트푸트, 『속사도 교부들』, 이은선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110.

19) William R. Schoedel, *Ignatius of Antioch*, 7-10.

20) 후베르투스 드롭너, 『교부학』, 하성수 역 (칠곡: 분도출판사, 2001), 121-123.

하늘나라의 모상을 반영한다고 했다. 교회는 삼위일체의 전형에 따라 감독의 지도 아래 장로와 집사로 조직된다고 했다. 이그나티우스에 따르면 전 교회는 몸인 그리스도에게 종속되고, 그리스도가 성부에게 순종하듯이 공동체는 교회의 우두머리인 감독에게 순종해야 한다. 감독은 세례와 성찬에 관한 직무를 거행하며 정통 신앙을 보호해야 한다. 셋째, 순교 신학과 순교에 대한 갈망이다. 그의 순교에 대한 갈망은 완전함에 대한 금욕적이고 윤리적 지향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름이라는 신학에 기초를 둔다.

1.3. 이그나티우스의 신학 사상

90-160년에 해당하는 사도 시대 이후의 문헌은 일부는 신약 성서의 형태를 계승하고, 더러는 새로운 형태를 발전시킨 네 가지 문학 장르로 특징지어진다. 먼저 모든 공동체에 공개적으로 낭독할 것을 전제한 순수한 서신이 생겨났고, 그밖에 전례와 공동체 생활이 가르침, 설교, 그리스도교 최초의 시에 대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냈다. 사도들의 제자 또는 시대적으로 사도들과 그리 멀지 않은 시대에 산 사람들이 저술한 이 작품들은 아직도 원시 그리스교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사도 전승을 직접적인 증거로 내세우고 공동체의 구조, 생활의 표현, 신학, 언어 면에서 신약 성서의 작품과 매우 유사하다.²¹⁾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희망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했다.”²²⁾ 또한 “그들은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단과 교회의 분열을 경고했다.”²³⁾

21) 후베르투스 드롭너, 『교부학』, 116-117.

22) Berthold Altaner, *Patrology*, 43.

23) Berthold Altaner, *Patrology*, 43.

사도적 교부 연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신학 학파나 신학 경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음을 본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 뒤에는 근본적인 통일성이 있다. 이 중 소아시아와 시리아의 신학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대조를 이루는데, 요한적인 작품들, 이그나티우스, 폴리카프, 파피아스, 그 외 여러 개의 위경적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다. 이 저작들은 기독교를 기본적으로 도덕적 가르침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불멸을 획득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규범을 따르는 데 있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합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그나티우스에게는 성찬이 중요했다. 그는 또한 교회의 연합을 호소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상호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시리아의 이방 기독교는 아람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유대 기독교를 닮고자 했다. 여기서 두 가지 언어를 사용했음에도 쉽게 혼합되었다. 안디옥과 그 주변의 기독교는 처음부터 헬라주의로 규정된 기독교가 지배하였고 이그나티우스가 그 대표적 인물이었다.²⁴⁾ 시리아와 소아시아의 기독교에 영향력을 끼쳤던 외부적 힘으로는 신비주의 제의, 영지주의, 에세네파 유대교 등이 있다. 신비 종교의 영향력은 무엇보다도 성찬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로 보는 데 있다. 영지주의도 이 지역에서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는데 무엇보다도 계시의 이론에서 영향이 컸다. 기독교론과 우주론에 미친 영향력은 성육신의 역사적 실재를 주장하는 이그나티우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유형이 기독교에 미친 유대교의 영향력은 바리새파주의보다는 주로 에세네파 운동에서 왔으며, 이러한 영향력을 받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몇몇 학자들은 순전히 신비주의적 요소를 지닌 기독교의 뿌리라고 부르기도 했다.

교회의 조직과 행정면에서 보면 다양한 형태가 있다. 몇몇 속사도 교부들은 군주적 감독 제도와 3중적 계층 질서의 교직 제도를 강조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와 같은 교회 제도를 알지도 못했으며 감독과

24) 김광식, 『고대 기독교 교리사』, 70.

장로를 구별 짓지도 않았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속사도 교부들은 선재를 주장하며 동시에 신성과 인성을 말했다.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성령간의 관계성에 관해서는 모든 속사도 교부들은 여러 모양의 삼위일체의 형식을 갖추었다.

속사도 교부들이 후기 기독교 사상의 발전에 끼친 영향력은 동일하지 않다. 이들 중 몇몇은 후기 기독교인들에게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다.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은 클레멘트와 이그나티우스다. 그것은 이들의 신학이 유대적 기독교의 양상을 가장 적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그나티우스는 마태복음과 고린도전서를 읽었으며, 사도 바울보다는 사도 요한의 신학에 더 가깝다.²⁵⁾ 이그나티우스와 요한 문서 저자와의 관계에 대해 제롬은 이그나티우스가 폴리갑과 파피아스와 더불어 에베소에서 요한의 제자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신빙성은 없으나 이그나티우스와 요한 문서의 신학 사이에는 깊은 관계성이 있음이 확실하다고 본다.²⁶⁾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의 주된 목적은 거짓 가르침에 대한 공격과 교회 연합의 핵심으로 감독의 권위를 강화시키려는 데 있었다.²⁷⁾ 이그나티우스의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신비주의 종교와 영지주의, 유대 기독교, 헬라적 유대주의, 대중적인 헬라 문화 등과 연관 지어 연구하기도 한다.²⁸⁾ 또한 이그나티우스 신학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죽으심에 집중한 것이

25) 코윈 뿐만 아니라, 슈미트도 이그나티우스가 요한적, 클레멘스가 바울적, 그리고 헤르마스가 베드로적 방향을 따랐다고 보았다. V. Corwin, *St. Ignatius and Christianity in Antioch*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0), 66-69; 슈미트, 『교부학 개론』, 50.

26) 리처드슨은 이들 두 신학의 근접성은 서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끼쳐서라기보다는 두 저자가 동일한 신학 학파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C. C. Richardson, *The Christianity of Ignatius of Antioch*, 68-75.

27) Franklin H. Littell, *Atlas History of Christianity*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1976), 13.

28) William R. Schoedel, *Ignatius of Antioch*, 15-17.

라고 강조했다.²⁹⁾

독자적이고 아람적 사고에 입각한 이그나티우스의 신학은 비유대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사상에는 초기 영지주의적 경향이 있으나 결코 영지주의가 아니었고 요한과 바울의 전통에 관계되어 있었다. 기독교론과 구원론의 결합에 있어서 초기 영지주의적 소지가 발견된다. 즉, 구세주의 하강은 구원받은 자들이 올라가야 할 길이 된다. 모든 신자는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이미 여기서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난 것이며 그들의 표지는 아가페다. 하늘 여행의 완성은 기독교적 삶의 종결이다. 기독교 공동체 전체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 특기되지만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결합된다. 이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재현한다. 그리스도인은 순교에서 그리스도와 같게 된다. 스테반도 순교당할 때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하였다. 순교자는 죽은 후에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리스도의 하늘의 몸의 지체가 된다.³⁰⁾

이그나티우스가 초기 영지주의에 접하였으나 영지주의의 소질을 체계화하거나 절대화하지 않았다. 즉, 그가 영지주의적 양태설에 따라 성부와 성자를 동일시하였으나 또한 그는 양자의 관계를 역설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이미 니케아의 동일 본질론을 향하여 나가고 있었다. 이그나티우스 신학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전면에 등장하고 성령은 교회를 세상에서 분리시켜 하나님과 결합시키는 생활 영역이다. 교리적인 삼위일체 신학은 아니지만 그는 성직의 세 계급을 성삼위에 비유하였다. 그에게는 아람적 이방 기독교와 디아스포라 유대교의 사상이 결부되어 헬라주의의 동양적 바탕에서 기독교 신학이 형성되었다. 교회를 ‘보편적’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든지, 형상 신학이 등장한 것이라든지,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금욕생활의 목표로 되었다든지 하는

29) William R. Schoedel, *Ignatius of Antioch*, 17-31.

30) 김광식, 『고대 기독교 교리사』, 70-72.

것이 모두 이에 속하는 것이다. 이그나티우스는 생명을 주는 성례식을 집전하는 각 지방의 감독들에게 초점을 맞춰 정통에서 멀어지는 분파 문제들을 해결하는 답을 얻고자 했다.³¹⁾

2. 초기 교부들의 구약 성서 이해

초기 교부들은 예언의 증거로 구약 성서를 이해했다. 클레멘스 1서와 바나바 서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속사도 교부들이 구약 성서를 예언의 증거로 활용했다.³²⁾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첫째,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둘째, 토라에 나타나는 예전적 계명은 더는 의무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³³⁾ 셋째, 교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³⁴⁾ 증명하기 위해 사용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구약 성서의 본문들은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는 것이다.³⁵⁾

‘예언의 증거’ 전통에 속하지 않은 초기 교부들의 자료로는 『클레멘

31) 헨리 채드윅, 『초대교회사』, 43.

32) 반면 클레멘스 1서는 교훈적 실교를 담고 있고, 바나바 서신은 유대교를 논박하면서 구약 성서에 대한 극단적 해석을 했다. Oslo Oskar Skaraune, “The Development of Scriptural Interpretation in the Second and Third Centuries: except Clement and Origen,” Magne Saebo, ed., *Hebrew Bible, Old Testament: The History of Its Interpretation I/1: Antiquity* (Go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6), 378, 384-390.

33) K. Hoheisel, “Die Auslegung alttestamentlicher Opferzeugnisse im Neuen Testament und in der frühen Kirche,” *Frühmittelalterliche Studien* 18 (1984), 421-436; D. Wendebourg, “Die alttestamentlichen Reinheitsgesetze in der frühen Kirche,” *Zeitschrift für Kirchengeschichte* 95 (1984), 49-170을 참조하라.

34) N. Bonwetsch, “Der Schriftbeweis für die Kirche aus den Heiden als das wahre Israel,” *Theologische Studien, Festschrift Th. Zahn* (Leipzig: Friedrich Christian Wilhelm Bogel, 1908), 1-22를 참조하라.

35) Kenneth J. Woolcombe, “The Biblical Origins and Patristic Development of Typology,” *Essays on Typology* (London: A. R. Allenson, 1957), 39-75.

스 1서』가 있다. 속사도 교부들 가운데 구약 성서를 방대하게 인용한 자료로는 바나바 서신도 있다. 『클레멘스 1서』에서는 분명 예언의 증거로 구약 성서를 인용한 것이 거의 없다.³⁶⁾ 『클레멘스 1서』는 구약 성서의 대부분이 귀감(exempla)이자 교훈적 본문으로 설교처럼 기록했다. 『클레멘스 1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하기 구약 성서를 인용했다. 그래서 『클레멘스 1서』에서는 예언의 성취라는 주제가 두드러지지 않고, 서신에 배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 성서와의 연속성에 있다고 강조했다.³⁷⁾

테오필루스의 『아우톨리쿠스에게 보내는 서신』(*Ad Autolyicum*)도 예언의 성취와 다른 또 다른 방식으로 구약 성서를 인용한다. 테오필루스의 서신 2권은 창세기 1-11장에 대한 기독교적 주해의 첫 번째 실례를 담고 있다. 3권에서는 구약 성서의 선지자들을 헬라 시인들이나 철학자들과 비교하여 그것의 위대한 고대성(antiquity)에 대해서 폭넓은 증거를 제시한다.³⁸⁾

이처럼 초기 교부들의 저술에서 나타나는 증거 본문 전통은 유스티누스의 저술처럼 유대주의를 지녔다.³⁹⁾ 하지만 본래 유대인들과의 심도 깊은 논쟁으로 발전된 성서적 증거는 다른 논쟁에서도 그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이방인들에게 설교할 때, 기독교 저자는 전통적인 ‘예언의 증거’를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기독교의 고대성을 제시하고자 함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언의 성취’ 논의를 함축한 변증적 논쟁을 심화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예언의 증거’ 방식을 사용한 저술은 유스티누스의

36) A. von Ungern-Sternberg, *Der traditionelle alttestamentlichen Schriftbeweis* (Halle: M. Niemeyer, 1913), 274.

37) Oslo Oskar Skaraune, “The Development of Scriptural Interpretation in the Second and Third Centuries: except Clement and Origen,” 376.

38) Oslo Oskar Skaraune, “The Development of Scriptural Interpretation in the Second and Third Centuries: except Clement and Origen,” 376.

39) 유스티누스의 신학은 기독교 신앙과 이방 종교 철학의 전통 사이에 열린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를 놓았기에, 학문적 신학의 시작으로 평가된다. 윌리스턴 워커, 『기독교회사』, 송인설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71.

『변증서』와 이레네우스의 『속사도 선포의 논증』이 있다. 또한 마르키온과 영지주의와의 논쟁에서도 동일한 증거 본문 전통을 폭넓게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마르키온의 경우 예수는 구약 성서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기에, 테르툴리아누스와 이레네우스는 전통적 기독교의 ‘예언의 증거’로 반박하며 강화했다. 유대인과 논쟁할 때에도 구약 성서의 권위를 당연히 인정했지만, 예수와 교회 안에서 구약 성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증거의 목적이었다.

3. 이그나티우스의 구약 성서 이해

이그나티우스가 구약 성서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분명한 일곱 통의 서신들에 직접 인용된 구약 성서의 7구절을 살펴봄으로 문맥상 그 의미와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나타나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 혹은 복음에 비추어 본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 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그나티우스는 일반적인 ‘예언의 증거’ 전통만을 목적으로 구약 성서를 인용하지 않았다. 이그나티우스가 자신의 서신들에서 구약 성서를 언급한 횟수는 모두 7번이며, 대부분 교훈적 목적으로 언급했다.⁴⁰⁾ 즉, 그가 구약 성서를 인용한 곳은 일곱 군데(에베소 5:3; 에베소 15:1; 마그네시아 10:3; 마그네시아 12:1; 마그네시아 13:1; 트랄레스 8:2; 서머나 1:2)이며, 인용과 관련된 구절은 11개다(시 1:3; 시 33:9; 시 148:5;

40) 스카라운(Åskaraune)은 이그나티우스가 구약 성서를 언급한 횟수는 3번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필자가 확인한 바, 이그나티우스는 구약 성서를 분명 7번 언급했다. 스카라운이 원문을 자세히 파악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일 것이다. Oslo Oskar Skaraune, “The Development of Scriptural Interpretation in the Second and Third Centuries: except Clement and Origen,” 378-379.

잠 3:34; 잠 18:17; 사 5:26; 사 11:12; 사 49:22; 사 52:5; 사 62:10; 유딧서 16:14). 이 구절들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구약 성서를 인용했다. 첫째는 교훈적 설교를 목적으로 인용했다. 둘째는 유대교와 이교를 반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용했다. 셋째는 복음과 동등한 의미이자 예언의 성취를 목적으로 인용했다. 특히 초기 교부들이 구약 성서를 예언의 증거로 많이 활용한 일반적인 용례와 달리,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은 주로 교훈적 설교를 중심으로 활용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3.1. 교훈적 설교 중심의 인용

3.1.1.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 5:3=잠언 3:34

그러므로 일반 회중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오만한 것이며, 자기 스스로를 회중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감독을 대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⁴¹⁾

잠언 3:34를 인용한 이 구절은 베드로전서 5:5, 야고보서 4:6, 클레멘스 1서 30:2,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가 쓴 문집 3:6, 49:2, 4:17, 106:4 등에서도 언급했다.⁴²⁾ 이러한 자료는 모두 이그나티우스와 일치하는데, 칠십인역에서 사용한 ‘주’(Lord)보다는 오히려 ‘하나님’(God)으로 표현했다.

이그나티우스는 이 본문의 앞 절(5:2)에서 합심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전통에 호소했다. 마태복음 18:19-20에서는 두, 세 사람이

41) Ignatius, *Ignatius to the Ephesians*, AF, 178-179.

42) William R. Schoedel, *Ignatius of Antioch*, 54.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 합심 기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임재를 언급했는데, 이그나티우스는 한 두 사람의 기도의 능력을 언급했다. 유사한 주제가 후기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에서 발견된다.⁴³⁾ 이러한 전통에서는 한 사람의 경건의 가치도 심지어 강조된다. 그래서 아보트(*'Abobh*) 3:7에서는 토라를 연구한 열, 다섯, 셋, 둘, 혹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Shekinah*)이 임한다고 가르친다. 도마복음 30장에서 두이나 한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임재한다고 언급한다.⁴⁴⁾ 이처럼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언급한 이그나티우스는 마태와는 독립적인 전통을 보여준다.

이 본문은 ‘예언의 증거’나 ‘성서의 고대성’을 입증하기 위해 잠언을 인용한 것이 아니다. 이그나티우스는 4-6장을 통해 에베소 교회가 감독의 마음에 일치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감독과 교인들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즐거운 관계를 가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모든 곳에서의 일치와 조화가 가능하며,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감독을 주님과 같이 대해야함을 강조했다. 이것은 보편적 교회에 대한 이그나티우스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감독에게 복종하는 것은 일치에 대한 부르심을 표현하는 다른 방식이다.

3.1.2.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 15:1=시편 33:9; 148:5; 유딧서 16:14

말하면서 진실하지 못한 것보다 침묵하며 진실한 것이 더 낫습니다. 선생님께서 자신이 말한 것을 행한다면, 가르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또한 그분이 침묵 속에서 행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합니다.⁴⁵⁾

43) William R. Schoedel, *Ignatius of Antioch*, 55-56.

44) Jacques-E. Menard, *L'évangile selon Thomas*, NHS 5 (Leiden: Brill, 1975), 124-126.

45) Ignatius, *Ignatius to the Ephesians*, AF, 188-189.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 15-18장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잡담하면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보다 침묵하면서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했다. 이그나티우스는 공허한 말은 거짓 선생의 특징이라고 분명히 하면서,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선생님이므로 단순한 말이 아닌, 침묵의 행동이 더 큰 울림으로 말하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처럼 침묵과 진실의 온전한 사람은 오네시모 감독으로 추정할 수 있다.⁴⁶⁾ 그리스도를 본받는 감독은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의 침묵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또한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행하면서 간음이나 더러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했다.

첫 구절의 이그나티우스의 수사적 표현은 초기 기독교 전통과 그리스 로마의 문구에서도 발견된다. 첫 구절과 동일한 대조문구는 디오 크리소스툼(Dio Chrysostom)의 『기도』(*Oratio*) 38:30에서도 나타난다. 디오 크리소스툼은 그의 청중들에게 도시들 가운데 지도자들로 부름을 받은 것(καλεῖσθαι)만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되는 것(εἶναι)이라고 주장했다.⁴⁷⁾

이 본문에서 이그나티우스가 인용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εἶπεν καὶ ἐγένετο)는 구절은 시편 33:9; 148:5와 유딧서 16:14의 말씀이다. 이그나티우스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 창조의 장면을 재현했다.⁴⁸⁾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를 창조의 행위자로 보았다.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입술로 언급하기도 했다(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 8:2). 결국 이 본문도 교훈적 설교의 내용을 확증하기 위해 구약 성서를 인용한 것이다.

46) William R. Schoedel, *Ignatius of Antioch*, 77.

47) William R. Schoedel, *Ignatius of Antioch*, 77.

48) Joachim Jeremias, “Zum Logos-Problem,” *ZNW* 59 (1968), 82.

3.1.3. 마그네시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 12:1=잠언 18:17

만일 내게 합당하다면, 모든 일에서 여러분의 기쁨이 내게 임하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 하더라도, 자유로운 여러분 중의 한 사람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만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내가 여러분을 칭찬할수록 여러분의 겸손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압니다. “의로운 사람은 그 자신이 곧 참조자”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⁴⁹⁾

묶여 있는 이그나티우스와 자유로운 마그네시아 교인들을 구별한 것은 후에 생명에 관한 사도적 속성에 기여했다. 이그나티우스가 처한 상황은 좋지만, 사도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었다(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 4:3). 이것과 유사한 표현은 에픽테투스(Epictetus)에게도 발견된다. “육체가 자유롭지만 영혼이 묶여있는 사람은 중이다. 하지만 육체는 묶여있지만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자다.”⁵⁰⁾ 이그나티우스는 잠언 18:17을 인용하여 마그네시아 교인들을 칭찬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을 권면하면서 인용한 교훈적 설교에 속한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책인지심(責人之心)으로 책기(責己)하고, 서기지심(恕己之心)으로 서인(恕人)하라.”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인용구다. 즉,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책망하고, 자기 자신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의로운 사람은 그 자신의 잘잘못을 스스로 반성하며 돌이키기에 자신이 곧 참조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49) Ignatius, *Ignatius to the Magnesians*, AF, 208-209.

50) Epictetus, *Gnomologium Epicteteum Stobaei*, Heinrich Schenkl, ed., *Epicteti Dissertationes ab Arriano digestae* (Leipzig: Teubner, 1916), 32.

3.1.4. 마그네시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 13:1=시편 1:3

그러므로 주님과 사도들의 교훈에 견고해지도록 근면하십시오. 그것은 태초부터 종말 때까지 멋지게 만든 영적 면류관과 함께 여러분이 존경하는 감독과 장로와 경건한 집사들이 모두 육체나 영 안에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번성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⁵¹⁾

이 본문에는 속사도 시대의 교회 조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구절로서 감독과 장로와 집사 직분이 세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그나티우스 시대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그나티우스는 구원의 사건에 근거한 일치 선언처럼 공동체의 절서 정연한 삶을 주장했다. 그러한 이유로 시편 1:3의 말씀을 인용했다. 교회 질서와 체계를 위해 직분의 구분과 권위자에 대한 복종이 곧 우리들 자신의 번성으로 연결됨을 시편 1장을 통해 기록했다. 즉, 이 부분 역시 교훈적 설교를 위한 인용으로 볼 수 있다.

3.2. 유대교와 이교 반박을 위한 인용

3.2.1. 마그네시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 10:3=이사야 66:18; 45:23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유대교를 따르는 것은 끔직한 일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 신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가 기독교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입술이 함께 그 안에 모이기” 때문입니다.⁵²⁾

51) Ignatius, *Ignatius to the Magnesians*, AF, 208-209.

52) Ignatius, *Ignatius to the Magnesians*, AF, 206-207. 스카라운은 이 본문을 찾아내지

이그나티우스는 유대교화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그나티우스는 마그네시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며, 기독교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마그네시아 10:1). 이그나티우스는 우리가 여전히 유대교적으로 살면 은총을 받지 못했다(마그네시아 8:1). 이그나티우스는 기독교는 성서의 예언들을 성취로 보았지만, 유대교는 성서를 오해한 것으로 보아 부정했다.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말씀은 빌립보서 2:1과 이사야 45:23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사야 본문은 로마서 14:11에서 바울이 인용했으며 회당 예배의 마지막 부분인 기도에서도 사용되었다.⁵³⁾ 특히 이 구절과 동일한 이사야 66:18은 유대인의 기도와 기독교 찬송의 주제로 함께 사용된다. 이러한 점은 이그나티우스가 구약 성서의 예언서들을 읽는 본을 보여준다. 즉, 예전적 전통을 위해 목상하며, 궁극적으로는 그가 언급한 바로 유대교를 반박하기 위해 인용했다.⁵⁴⁾

그래서 이 본문은 단순한 교훈적 설교 차원의 인용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확증하기 위한 연속성 차원에서 인용한 말씀도 아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관계에서 과거에 존재한 유대교가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유대교의 기초가 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한 증거로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다. 이것은 분명 예언 성취의 증거나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거, 그리고 교훈적 설교나 성서의 고대성을 뒷받침해 주는 인용이 아니다. 마그네시아 교회에 보내는 10장은 그리스도인이 유대교의 행동방식을 모방해도 안 되며, 유대교 신앙을 병행하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로 여겼다. 오히려 유대교 신앙마저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 속으로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것의 근본적 동기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제되어서

못했다. 아니면 교훈적 설교로서의 인용이 아니므로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을 수도 있다.

53) Joseph H. Herz, *Daily Prayer Book* (New York: Bloch, 1961), 211.

54) William R. Schoedel, *Ignatius of Antioch*, 127.

는 안 되기 때문이다.⁵⁵⁾

결국 여기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악한 누룩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누룩으로 돌아오라고 강조했다. 즉, 기독교와 유대교 신앙과의 명확한 차이점을 인식하고 그들의 행동양식을 따르지 말라고 당부한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은 초기 교부들의 일반적인 구약 성서 이해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즉, 기독교와 유대교의 구분과 명확한 차이점을 강조하기 위해 인용한 본문이며, 더 나아가 유대교를 반박하기 위해 인용한 본문이다.

3.2.2. 트랄레스 교회에 보내는 서신 8:2=이사야 52:5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그의 이웃에 대해 탐욕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기회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회중이 소수의 어리석은 자들로 인해 모욕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 헛되이 모욕당한다면 그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⁵⁶⁾

이그나티우스는 트랄레스 교회에 보내는 서신 7-10장에서 누구든지 감독과 장로와 집사 없이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 귀머거리가 되라고 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맥에서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통해 강조했다. 이 본문은 두 가지를 다루기 위해 사용했다. 첫째, 유대인들을 반박하기 위함이다. 둘째, 이교도들을 옹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사야 52:5의 저주 형식이 사용된 것이다. 이그나티우스는 이교도

55) Ignatius, *Ignatius to the Magnesians*, AF, 208-209.

56) Ignatius, *Ignatius to the Trallians*, AF, 220-221.

들을 인정하지 않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교회의 권징을 유지할 수 있었다.⁵⁷⁾

3.2.3.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서신 5:1

이그나티우스는 가현설 이단을 반박하면서 선지서와 모세의 율법이 복음과 동등한 진리를 증언한다고 보았다.

그분을 어리석게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지만, 오히려 그분에 의해 거부된 것입니다. 진리보다는 죽음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지서나 모세의 율법으로도 설득되지 않으며, 심지어 지금까지도 복음이 나 우리 자신의 개인적 고난으로도 설득되지 않습니다.⁵⁸⁾

이그나티우스는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유대주의보다 가현설 이단에 더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1-4장에서 이그나티우스는 가현설 이단을 반박했고, 5-7장에서도 성만찬에 대한 가현설 이단의 주장을 반박했다. 5:1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은 선지서나 모세의 율법, 복음이나 성도의 고난 등 그 어느 것으로도 설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은 선지서나 모세의 율법이 복음과 동등한 진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3.3. 복음과의 동등성과 예언의 성취로서의 율법과 선지서

3.3.1.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서신 7:2

이그나티우스는 선지서와 복음 안에서 예수의 고난이 계시되었고,

57) William R. Schoedel, *Ignatius of Antioch*, 150-151.

58) Ignatius, *Ignatius to the Smyrnaeans*, AF, 256-257.

예수의 부활이 성취되었음을 주장했다. 서머나 5:1처럼 복음과 선지서의 동등한 역할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을 삼가고 그들과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선지서와 특별히 복음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났으며 부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악의 시초인 분열을 피하십시오.⁵⁹⁾

3.3.2.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 8:2

여기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예언의 증거에 대한 효력에 대한 논쟁을 통해, 예수의 고난과 부활이 구약 성서의 중심 내용임을 강조했다.

내가 구약 성서(ἀρχαίους) 속에서 이것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것을 복음으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나에게 구약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침범할 수 없는 구약 성서는 그분의 십자가이며 죽음이고, 부활이자 믿음입니다.⁶⁰⁾

이 본문에서 이그나티우스는 구약 성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고난과 부활이라고 언급했다. 이것은 예수의 고난과 부활이 구약 성서의 중심 내용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그나티우스는 또한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 5:2와 9:2에서도 예언자들이 복음을 알려주고 기대했다고 기록했다.⁶¹⁾ 이처럼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는 율법과 선지서를 복음과 동일한 진리로 여겼고, 구약 성서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음을 드러냈다. 예언들에 대한 대망이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고 강조했다.

59) Ignatius, *Ignatius to the Smyrnaeans*, AF, 258-259.

60) Ignatius,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AF, 246-247.

61) Ignatius,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AF, 242-243, 248-249.

3.3.3.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서신 1:2=이사야 5:26; 11:12; 49:22; 62:10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치하에서 우리를 위해 육체로 나무에 못 박히셨습니다(우리는 그분의 신적으로 복된 고난을 통해 우리는 그 열매를 누립니다). 그분은 그의 성도들과 신자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의 교회의 한 몸 안에서 부활을 통해 모든 세대를 위해 “깃발을 올렸습니다.”⁶²⁾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서신 1-4장에서 이그나티우스는 가현설 이단을 반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주장했다. 부활 후에도 육체를 입고 있었으며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까지 하셨음을 강조했다. 또한 성도들이 진리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1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강조하고자 그 예언의 성취 측면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했다. 물론 이 본문은 가현설에 대한 반박을 포함하고 있지만, 주요 관심은 예언의 성취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깃발을 들어 올렸다는 말은 이사야 5:26, 49:22, 62:10에 나온 용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여기에서 ‘깃발’(σύσσημον)은 ‘십자가’를 의미한다.⁶³⁾ 이사야 5:26은 이방인들을 언급했지만, 이방인들에게 깃발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표현된 것이다. 그렇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십자가를 통해 한 몸을 이룬다는 에베소서 2:16-17에서도 이러한 관점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수렴, 곧 보편적 교회의 역사적 실재를 늘 마음에 품고 있었다.⁶⁴⁾ 그리스 로마의 정치와

62) Ignatius, *Ignatius to the Smyrnaeans*, AF, 252-253.

63) 깃발과 십자가의 개념은 군사적 비유로서 그것은 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군기나 중세의 십자군 전쟁 등에 활용되기도 했다. Adolf von Harnack, *Militia Christi* (Tübingen: Mohr, 1905), 20.

64) William R. Schoedel, *Ignatius of Antioch*, 223-224.

사회적 사상 속에서 교회가 한 몸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결국 이 본문은 구약 성서를 인용한 다른 본문들과 달리 예언의 증거를 위한 증거 본문으로 활용되었다.

4. 결론

이그나티우스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 상황에서 순교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보여줌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본을 주었다. 또한 이그나티우스는 유대교와 이교, 그리고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생애와 서신을 통해 본을 보여 주었다. 이그나티우스는 신학 사상가로서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과 이 가르침의 영향력을 중요시하며 서신을 기록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필자는 안디옥의 감독인 이그나티우스가 유대교와의 갈등 상황에서 경전인 구약 성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초대 교부들의 구약 성서에 대한 이해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예언의 증거로서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예언의 성취를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교훈적 설교로 거룩한 삶의 귀감을 제시하며, 구약 성서와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셋째, 성서의 고대성으로 기독교 정체성과 복음이 구약 성서와 연속성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서적 진리로서의 고대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의 초기 교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는 ‘예언의 증거’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그나티우스가 인용한 구약 성서는 주로 교훈적 설교를 위함이었지만, 부분적으로 예언의 증거도 강조했다. 그는 서신에서 유대교와의 구분을 언급하기 했지만, 선지서나 모세의 율법이 복음과 동등한 진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이그나티우스는 구약 성서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음을 드러냈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되었다고 강조했다.

<주요어>

초기 교부들, 구약 성서, 이그나티우스, 서신들, 예언의 증거, 교훈적 설교, 성서의 고대성

<Key Words>

Early Church Fathers, Old Testament, Ignatius, Epistles, Proof from Prophecy, Panaenetic Homily, Biblical Antiquity

* 접수일 2011년 8월 26일, 수정일 2011년 8월 27일, 게재 확정일 2011년 9월 15일

참고문헌

- 곤잘레스, 후스토, 『기독교사상사 I』, 이형기, 차종순 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88.
- 곤잘레스, 후스토, 『초대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은성, 1987.
- 김광식, 『고대 기독교 교리사』, 서울: 한들출판사, 1999.
- 김광채, 『교부열전』(상권: 니케아 이전 교부), 서울: 정은문화사, 2002.
- 드롭너, 후베르투스, 『교부학』, 하성수 역, 칠곡: 분도출판사, 2001.
- 라이트푸트.하머, 『속사도 교부들』, 이은선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 슈미트, 『교부학 개론』, 정기환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7.
- 워커, 윌리스턴, 『기독교회사』, 송인설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 채드윅, 헨리, 『초대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폭스, 존, 『순교사』, 엄성옥 역, 서울: 은성, 1992.
- Altaner, Berthold, *Patrology*, H. C. Graef., trans., New York: Herder & Herder, 1960.
- Barnard, L. W., *Studies on the Apostolic Fathers and their Background*, Oxford: Basil Blackwell, 1966.
- Bonwetsch, N., “Der Schriftbeweis für die Kirche aus den Heiden als das wahre Israel,” *Theologische Studien, Festschrift Th. Zahn*, Leipzig: Friedrich Christian Wilhelm Bogel, 1908, 1-22.
- Brent, Allwn, “The Enigma of Ignatius of Antioch,” *The 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 57 (2006), 429-456.
- Chadwick, Henry, *The Early Church*, New York: Penguin Books, 1967.
- Corwin, V., *St. Ignatius and Christianity in Antioch*,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0.
- Eusebius Pamphilus, *Eusebius' Ecclesiastical History*, Peabody: Hendrickson, 1995.
- Frend, W. H. C., *Martyrdom and Persecution in the Early Church*, Cambridge: Lutterworth Press, 2008.

- Goltz, E. F. von der, *Ignatius von Antiochien als Christ und Theologe: Eine dogmengeschichtliche Untersuchung*, TU 12:3, Leipzig: J. C. Hinrichs, 1894.
- Grant, Robert M., *Ignatius of Antioch*, New Jersey: Nelson, 1966.
- Harnack, von Adolf, *Militia Christi*, Tübingen: Mohr, 1905.
- Herz, Joseph H., *Daily Prayer Book*, New York: Bloch, 1961.
- Hoheisel, K., “Die Auslegung alttestamentlicher Opferzeugnisse im Neuen Testament und in der frühen Kirche,” *Frühmittelalterliche Studien* 18 (1984), 421-436.
- Ignatius, *The Apostolic Fathers*, J. B. Lightfoot and J. R. Harmer, ed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891, 1988.
- Ignatius, *The Epistles of Saint Ignatius*, Edited by Alexander Roberts & James Donaldson, The Anti-Nicene Fathers 10, Grand Rapids: Wm. B. Eerdmans, 1885.
- Ignatius, “ΤΟΥ ΑΓΙΟΥ ΙΓΝΑΤΙΟΥ ΕΠΙΣΤΟΛΑΙ,” G. P. Goold., ed., *The Apostolic Fathers I*, The Loeb Classical Library, Kirsopp Lake, tra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12, 1977.
- Irenaeus, *Against Heresies*, Alexander Roberts and James Donaldson, eds., The Anti-Nicene Fathers 10, Grand Rapids: Wm. B. Eerdmans, 1885.
- Jeremias, Joachim, “Zum Logos-Problem,” *ZNW* 59 (1968).
- Justin Martyr, *Dialogue with Trypho*, Edited by Alexander Roberts & James Donaldson, The Anti-Nicene Fathers 10, Grand Rapids: Wm. B. Eerdmans, 1885.
- Justin Martyr,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 Ante-Nicene Christianity A.D. 100-325*,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50.
- Justin Martyr, *The First Apology*, Edited by Alexander Roberts & James Donaldson, The Anti-Nicene Fathers 10, Grand Rapids: Wm. B. Eerdmans, 1885.
- Justin Martyr, *The Rise of Christianity*, Philadelphia: Fortress, 1984.
- Lawson, John, *A Theological and Historical Introduction to the Apostolic Fathers*,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1.

- Lightfoot, J. B., *The Apostolic Fathers* 2:1, London: Macmillan, 1885.
- Littel, Franklin H., *Atlas History of Christianity*,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1976.
- Menard, Jacques-E., *L'évangile selon Thomas*, NHS 5, Leiden: Brill, 1975.
- Radice, Betty, trans., *Pliny Letters and Panegyricus II*, London: William Heinemann, 1976.
- Richardson, C. Cyril, ed., *Early Christian Father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1, Philadelphia: Westminster, 1953.
- Schaff, Philip,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I, Apostolic Christianity A. D. 1-100*,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50.
- Schoedel, William R., *Ignatius of Antioch*, Philadelphia: Fortress, 1985.
- Skaraune, Oslo Oskar, "The Development of Scriptural Interpretation in the Second and Third Centuries: except Clement and Origen," Magne Saebo, ed., *Hebrew Bible, Old Testament: The History of Its Interpretation I/1: Antiquity*, Go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6.
- Tillich, Paul,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Braaten, ed., London: SCM Press Ltd., 1968.
- Torrance, Thomas F., *The Doctrine of Grace in the Apostolic Fathers*,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48, 1960.
- Troeltsch, Ernst,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2, Olive Wyon., trans.,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31.
- Ungern-Sternberg, A. von, *Der traditionelle alttestamentlichen Schriftbeweis*, Halle: M. Niemeyer, 1913.
- Wendebourg, D., "Die alttestamentlichen Reinheitsgesetze in der frühen Kirche," *Zeitschrift für Kirchengeschichte* 95 (1984), 49-170.
- Woolcombe, Kenneth J., "The Biblical Origins and Patristic Development of Typology," *Essays on Typology*, London: A. R. Allenson, 1957.
- Wuerl, Donald W., *Fathers of the Church*, Boston: St. Paul Editions, 1974.

<초록>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의 구약 성서 이해

김유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가 구약 성서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그나티우스는 사도들과 긴밀한 관계에서 기독교 신앙과 정체성을 이어준 대표적 속사도 교부로서 그의 서신에 나타난 신학 사상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 상황에서 순교 신앙으로 기독교 정체성을 부각시켰으며, 유대교와 이교,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에 대처하면서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밝혔다.

초기 교부들의 구약 성서에 대한 이해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예언의 증거로서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typoi*)이며, 예언의 성취를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교훈적 설교로 거룩한 삶의 귀감(*exempla*)을 제시하며, 구약 성서와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셋째, 성서의 고대성으로 기독교 정체성과 복음이 구약 성서와 연속성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서적 진리로서의 고대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의 초기 교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는 ‘예언의 증거’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반면에 이그나티우스가 인용한 구약 성서는 주로 교훈적 설교를 위함이었지만, 부분적으로 예언의 증거도 강조했다. 그는 서신에서 유대교와의 구분을 언급하기 했지만, 선지서나 모세의 율법이 복음과 동등한 진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이그나티우스는 구약 성서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음을

드러냈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되었음을 강조했다.

<Abstract>

Bishop of Antioch, Ignatius' Understanding on the Old Testament

Adjunct Prof. You-Joon Kim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quire into the early church fathers' understanding on the Old Testament. Especially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Epistles of Ignatius who was the bishop of Antioch. As a foremost apostolic father, Ignatiu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to succeed to the Christian faith, so that it is worth investigating his theological thought. Under the persecution, he emphasized the identity of Christianity as martyrdom, refuting against heresy such as Gnosticism.

There have been three distinctive kinds of the early church fathers' understanding on the Old Testament. First, as a proof from prophecy, the Old Testament is a sample or typos of Jesus Christ, proving the fulfillment of prophecy. Second, it shows an exemplar of the holy life, functioning as an instructive sermon or a panaenetic homily. Third, the identity of Christianity can be guaranteed by the Old Testament, so that Christian faith has attained the biblical antiquity. Among them, most early church fathers emphasized the completion of prophecy by making use of the first function of the Old Testament.

Ignatius also accepted this tradition, though he usually suggested the Old Testament as a panaenetic homily. What is the

most significant point is that Ignatius considered the role of the laws of Moses or the Old Testament equivalent to that of the gospel. In sum, Ignatius revealed the main theme of the Old Testament is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in which the prophecies of all the prophets have been achieved.